

Minutes of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Steering Team Meeting

KMA 운영위원회 모임 회의록

Thursday, June 4, 2026, 12:00 p.m. ET

Meeting via Zoom

참석자: 공강국, 김문배, 박성재, 박정언, 배헌석, 이천선, 정경원, Chris Choe, Catheryn Jo, James Lee

결석자: 권영만, 김강원, 김은범, 남동우, 서오석, 이두영, 허성현

1. 임원 회의 보고 - 보고자: 이천선 목사(KMA 총무)

- a. **운영위원회 회의 일정:** 매월 목요일 12시, 1시간 진행으로 확정
- b. **회계 업무:** 박정언목사가 계속 담당하되, 회계 보고가 필요한 운영위원회에만 참석
- c. **회의록 작성:** AI 도구(Zoom AI Companion) 활용하여 자동화
- d. **여성 사역**
 - i. 사모펀드(Samo Fund) 조성: 교회당 \$500 + 목사 개인당 \$100 모금 방식 채택
 - ii. 사모펀드 사용처: 사모님 여행 비용 및 프로그램 지원
 - iii. 특별 TF팀 구성: 여성 목회자 그룹, 사모님 그룹을 위한 TF팀 구성하여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강화
- e. **은퇴 목사 축복:** 매년 한인총회에서 은퇴 목사님 축복 및 기념 선물 증정을 정례화
- f. **AI 교육 세미나 예정:** 목회자 대상 AI 활용 교육 진행, 기초 1강 등록비 50% 지원 (\$50), 한 교회당 한 명 지원
- g. **2026년 주요 사업 계획:** 지역별 소규모 모임 활성화
 - i. 목적: 지역 단위 러닝 커뮤니티 형성, 교단 목회자 간 교제 강화
 - ii. 운영 방식: 동부/서부/중부 지역별 세미나 + 식사 모임
 - iii. 예산 지원: 현 총 예산 중 약 \$4,000 배정, 인원 비례 지원
 - iv. 강사: 교단 Thrive 사역자, 교회 장로/집사 교육 활용
 - v. 호스트 교회: 각 지역에서 장소 제공 교회 섭외 필요

2. 사모님 모임 개선 논의

- a. 배경: 2026년 한인총회 피드백 - 사모님 프로그램 및 대우 개선 필요
- b. 펀드 조성:
 - i. 각 교회에 \$500 후원 요청 (총회 권고사항), 목사 개인당 \$100 자발적 참여
 - ii. 예상 모금액: 70-80명 기준 약 \$7,000-\$8,000
- c. 사용 계획:
 - i. 사모님 여비(항공료) 지원 우선
 - ii. 현장에서 현금 지원 검토
 - iii. 별도 사모님 프로그램 운영 경비
- d. 한인총회 준비 TF팀 개편안: 사모 1인 포함하여 사모의 관점 반영

3. 은퇴 목사 축복 문화 정착

- a. 2026년 시범 운영: 남동우 목사, 레슬리 목사 은퇴 축복 진행, 긍정적 반응
- b. 2027년 계획:
 - i. 은퇴 예정 목사 사전 파악 및 한인총회 초청
 - ii. 기념 선물 준비 (지역명 + 재임기간 새긴 기념품 또는 기프트카드)

4. 연장교육

- a.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
 - i. 강사: 스위스 제네바 소재 사역자, 목회 행정 및 설교 준비 AI 활용 전문가
 - ii. 일정: 6월 15일 시작, 무료 세미나에 이어서 2주 기초 1강과 4주 2강 과정 (이후 심화 과정 선택)
 - iii. 등록비: 각 과정당 \$100 (기초 1강은 KMA 50% 지원으로 개인 부담 \$50)
 - iv. 모집: 선착순 제한 없이 희망자 전원 지원, 홍보 영상 제작 예정
 - v. 홍보: 웹페이지, 페이스북, 운영위원회 단체방 공지

5. 재정 현황

- a. 총 잔액: \$19,000 (2026년 한인총회 후)
 - i. 내년 시드머니 확보: \$10,000-\$15,000 필요 (사전답사 및 컨퍼런스 준비)
 - ii. 사용 가능 예산: 약 \$4,000 (지역 모임 + AI 교육 등)

iii. 교단 지원: \$1,000 (총장실 \$500 + 드라이브 \$500, 영수증 제출 후 지급)

6. 2027년 한인총회

- a. 장소:
 - i. 후보지: 텍사스 오스틴, 콜로라도 스프링/덴버, 노스캐롤라이나
제외: 크루즈/칸쿤 (접근성), 밴프 (4월 날씨), 마이애미 (고비용)
- b. 향후 진행 방향: 신속한 결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후보지 내 잠재적 주최 교회들과 접촉하고, 카카오톡 채팅방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들의 선호도를 수집한 후 TF 팀과 협력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함
- c. 사전답사: 8월 중순 또는 10월 말 예정

7. 조직 운영 개선

- a. 운영위원회 역할 재정립:
기존: 모든 안건 승인 필요 → 개선: 임원회 결정 후 보고 체계로 전환
운영위원회는 정보 공유 및 지역 상황 피드백 중심
- b. TF팀 별도 운영: 한인총회 준비 시 TF팀 독립 회의 진행, 운영위원회는 보고만 수령
- c. 운영위원회 지역별 보고 및 목회자 동정

8. 각 지역/위원회별 보고

- **중서부 지역:** 김문배 목사 - 칼라마주 한인교회 안창호 목사님 6월 말 사임.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
- **Hanmi 노회:** 3개의 교회방문단을 두고, 목사님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교제 하는 모임을 진행중
- **GLA 노회:** 공강국 목사 - 세리토스 선교교회 방상용 목사님 방광암 수술 후 회복 중으로, 건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함.
- **KIM 위원회:** 김문배 목사 - 교단 영입위원회 후보: 서길성 목사, 강모세 목사 후보, 최종 1인 16일 결정 예정
- **영어권:** James Lee 목사 - Thrive를 통해 영어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
- **교단 본부:** Catheryn Jo - 교회헌법 적용 과정에서 문화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지도국장이 헌법 번역 검토위원회 및 한인 리더들과 미팅을 제안함

[부록]

위원별 향후 조치 사항 (Next Steps)

- 사모펀드를 위한 편지를 작성해서 KMA 이름으로 각 교회 당회를 보내기로 함
- 2026-27 운영위원회의 신규채팅방에 대해, 임원들이 의논하고 보고하기로 함
- 운영위원회 채팅 방에 2027년 총회지 결정을 위한 투표를 제안하고 종합해서 가능한 지역에 연락을 하고 총회지역을 결정하기로 함

기타 안건

-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: 진행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임원진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승인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. * 임원진과 운영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 및 관계 재정립을 논의함. 의사결정 권한의 강화와 명확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이 강조됨.
- KMA 한인총회 및 컨퍼런스 명칭에 대해서 총회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함
- 다음 회의에서 크리스 목사의 운영위 지속적으로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